

칭찬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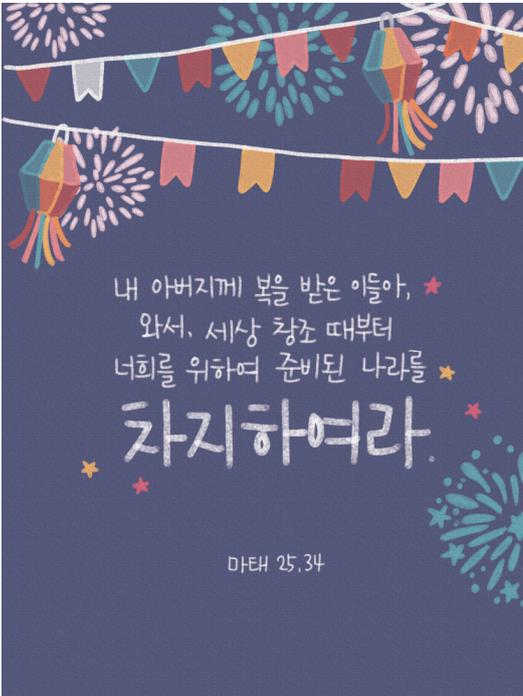


그림 | 노젬마

입당송 목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예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ㄱ.2ㄴ-3,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 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코린 15,20-26.28

복음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마태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전례력: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시작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그리스도



옥승만 가롤로 신부님
서울대학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의미를 이 세상의 왕의 개념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이 세상의 왕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람들 위에서 통치합니다. 자신의 왕국과 자신을 위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늘로 생각하는 성군도 있었지만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 위에 군림하실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들을 섬기는 모습 안에서 몸소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왕의 모습, 섬김 받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왕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왕의 모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의 삼중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왕직을 봉사직으로 표현하면서 신자들이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심판 때를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바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 예수님의 왕직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이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예수님의 왕직을 거부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지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왕직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의인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리세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맬 때에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려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세요.

도윤호 세레자 요한 수사
(예수회)

참 편한 삶

저는 일반대학 학부를 3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한 상태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예수회원들은 학업을 끝마치고 보통은 직장생활도 어느 정도 경험해본 후 입회를 하므로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입회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련기를 마치고 수도자로서 첫 서원을 발했을 때도 다른 동기 수사님들은 대학원에서 예수회 양성과정을 이어갔지만, 저는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홀로 다니던 학교에 복학해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간 학교는 입회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회의 삶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했던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곤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 신분이 수도자임을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본당 신자분들조차 수사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저는 ‘남자 수녀’ 같은 거예요.”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는 마당에 다른 학생들이 제 입장을 대번에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강의를 들으며 안면을 조금 뜬 친구 하나와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귀갓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친구는 제게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을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제 편에서도 마치 답례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니 자연스럽게 저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고, 신앙이 없던 그 친구에게 짧게나마 수도회 생활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내 조용히 듣기만 하던 친구는 제 말이 끝나자 단조로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편하겠네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해서 뭐라고 답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말인즉슨, 수도회라는 곳에서 생활도 공부도 책임져준다 하니 전 그저 주어진 길을 잘 걸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에 관해서도 애써 고민할 것이 없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가 된 후로 주로

신자분들만 만나던 저로서는 꿈에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가 속한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약간 거칠지만 솔직한 반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동체 경당에 앉아 성찰을 하는데 문득 입회 전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수도생활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 위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문제였지만 완전한 부정을 하기도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며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그 삶의 무게와 고민 앞에서 매번 침묵과 기도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곧 저의 약함이자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일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 안에 커다란 화두로 남았습니다.

세상에 매인 것이 적은 수도자들은 실제로 당장 먹을 양식을 고민하거나 딸린 식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표현대로 ‘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전 이것이 축성생활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느님의 일에 더 크게 투신하기 위한 ‘참 편한 삶’인 것입니다. 만일 수도자가 수도생활의 안정성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잊는다면, 이 편한 삶은 한낱 평범한 인간일 뿐인 수도자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편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수도여정을 시작하며 세속의 짐으로부터 일찍 자유로워진 것은 저에게 필요한 몫이었습니다. 이를 늘 감사하게 여기며, 제가 가지 않은 길 위에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신앙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또래 청년들의 열정에 존경과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GO

키워드로 알아보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키워드를 통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오 11세 교황

교황께서는 1925년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당시 신앙의 가치가 소홀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교황은 이 대축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개인과 가정, 또 사회와 전 우주에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날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나 주님 부활 대축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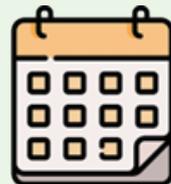
그리스도의 왕

인간을 구원하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왕'이란 정치권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음에도, 당신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제대 위에서 당신 생명을 바치시고 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

제정 당시 10월 마지막 주일, 즉 '모든 성인 대축일' 전 주일에 지냈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 후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왕권의 종말론적 관점을 드러내면서 '우주(온 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축일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그 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출처: 가톨릭 신문 참조/ 아이콘 designed by [Freepick] from Flaticon
[편집부 연민영 로사리아, 이진영 아눈시앗다]

267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1월 15일~17일 (비수박 3일)
장소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금액 120,000원
대상 20세~36세(2002~1986년생) 미혼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2020년 11월 11일(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로 신청

- * 코로나19로 인해 267차는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차수가 취소되어 수강하지 못하신 86년생분들을 위해 2021년에는 36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만 적용되며 2022년도에는 다시 35세로 조정됩니다.
-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